

COMPASS

June 2017

Colorful Daegu

www.daegucompass.com

ISSUE 75

MARVELOUS AND INTERESTING

THE LOOK SMITHSONIAN
EXHIBIT COMES TO DAEGU

SAMSUNG LIONS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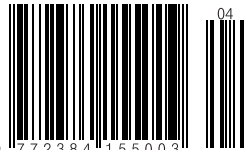
THE NEW MEXICAN
RESTAURANT IN TOWN

THE NATIONAL DAEGU METEOROLOGICAL SCIENCE MUSEUM

AN DESTINATION FOR VISITORS OF ALL AGES

COFFEE IN DAEGU

FINDING THE PERFECT CUP OF JOE



9 772384 155003

ISSN 2384-1559



COFFEE IN DAEGU

FINDING THE PERFECT CUP OF JOE

Written and photographed by Gwendolyn DeSilva
[<http://memoriesnotmaterialthings.com>]
Translated by Yujeong Lee



There certainly isn't a shortage of coffee shops in Daegu. I recently counted 47 different establishments where I could grab a morning latte in the 15 minute walk between the front of my apartment building and the doorstep of my workplace. Forty-seven! Admittedly, some of these were hardly salubrious, such as 7-Eleven and the run-down looking 'Hot Dog and Coffee'. And that's the thing about Daegu, whilst there is a coffee shop for about every fifty paces you walk, I've found there are only a few that manage to have that unique combination of an inviting ambience and strong espresso that Western java connoisseurs desire. So after extensive research, and a willingness to on occasion travel 45 minutes to visit such a place, I'm sharing with you my top places in Daegu for a cuppa.

대구에 카페가 부족한 것은 절대 아니다. 필자의 집 건물에서 직장 바로 앞까지 걸어서 15분간 거리에 오전 중 라떼를 살 수 있는 곳을 47군데나 찾았다. 무려 47군데이다! 이 중 몇몇은 제대로 된 곳이 아니라고 인정할 수 있다. 세븐일레븐이나 '핫도그와 커피' 처럼 보이는 부실한 장소 같은 곳들이다. 50보마다 카페가 있는 반면에 이런 것이 바로 대구이다. 필자는 손님들을 끌어들이는 좋은 분위기와 외국 자바커피 전문가들이 원하는 강한 에스프레소의 독특한 조합을 갖춘 몇 안 되는 카페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래서 좀 더 폭 넓은 조사와 45분이나 걸려서 그런 곳에 가고자 하는 의지 끝에, 대구에서 커피 한 잔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카페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Best for Downtown - Ryu Coffee Roasters

동성로에서 최고인 류 커피 로스터즈

Where else does your coffee come with a business card detailing tasting notes and the blend of beans used? If you are a coffee snob then Ryu Coffee Roasters is the cafe for you. In fact it is the only coffee shop I've ever visited where I was greeted at the door as if entering an upscale restaurant, shown to my chosen seat, and offered a bound menu of coffees to choose from. The team of baristas here are some of the best in the business, regularly winning local and national contests, and it is evident in each cup served. From espressos, to lattes, to hand-drip coffees every sip is perfectly balanced. But if the coffee doesn't steal the show, then the ambience well. The old meets new dark, rustic interior is contrasted with industrial

lighting and liting music. The perfect place to escape the hustle and bustle downtown. Additional outlets near Beomeo Station and on the 7th floor of Shinseage.

Address: Jung-gu Dongseong-ro 4-gil 91

테이스팅 노트와 커피에 사용된 블렌드를 자세히 나타내는 명함과 함께 커피가 나오는 곳이 또 어디에 있을까? 만약 당신이 커피를 좀 아는 사람이라면 류 커피 로스터즈가 딱 알맞는 카페이다. 사실, 이 곳은 가 본 카페 중에서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 온 듯 입구에서 마중을 받고, 고른 자리로 안내를 받고, 커피를 고를 수 있는 메뉴를 받은 유일한 곳이다. 이곳의 바리스타 팀은 주기적으로 지역 및 국내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등 업계에서는 최고이며, 내오는 커피에서 그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다. 에스프레소에서 라떼, 핸드드립 커피까지 한모금 한모금이 완벽하게 균형잡혀 있다. 하지만 커피가 관심을 독차지하지는 않고, 그 분위기가 시선을 끈다. 옛 것이 새로운 어두움을 만나고, 소박한 실내디자인이 공업 조명과 경쾌한 조명과 대비가 된다. 이 곳은 바쁘고 번잡한 시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완벽한 장소이다. 범여역 근처와 신세계 백화점 7층에 지점이 있다.

주소 : 중구 동성로 4길 91



Best for Novelty - Whip

가장 참신한 힙

Probably the tiniest and narrowest cafe in town. It also has quite a cult following, so be prepared to wait in order to indulge in Daegu's most unique brew. The baristas here top your espresso with slightly beaten whipping cream and serve with a cocoa dusted piece of artwork on top with designs ranging from flowers to smiling faces. The menu is limited to around a half dozen options including an Almond Mocha Viennese. It isn't coffee as you know it, but worth the visit for a totally unique experience.

Address: Jung-gu Namseong-ro 52

아마도 대구에서 가장 작고 좁은 카페일 수도 있다. 그리고 꽤 많은 팬들이 있다. 그러나, 대구에서 가장 독특한 커피를 마들것 즐기려면 기다릴 각오를 해야할 것이다. 이 곳의 바리스타는 가볍게 친 휘핑 크림을 에스프레소 위에 올리고 꽃에서부터 웃는 얼굴까지 다양한 디자인을 코코아 가루로 만든 하나의 예술 작품을 내놓는다. 메뉴는 아몬드 모카 비엔나를 포함하여 약 여섯개 정도로 한정되어 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커피가 아니지만 아주 독특한 경험을 위해 방문해 볼만 한다.

주소 : 중구 남성로 52

Contemporary European Restaurant

La Luce

Steak/Pasta
Salad/Mussel Stew
Homemade burger
Wine/Cocktail

Big Park
Kyungpook Nursing School
Kyungpook Uni. Hospital

Down town

11:30am - 10:30pm
Sun, Major holidays off
053. 606. 0733

대구 중구 삼덕동2가 45 분홍빛으로 병원 빌딩2F

-continued on p22-



적인 카페이다. 비록 지금은 주요 체인점이 되었지만 1990년에 경북대학교 근처에 문을 열었고, 한국에서 처음으로 로스팅 기계를 발명하고, 거의 틀림없이 대구에서 아마도 한국에서 커피열병을 일으킨 창시자라고도 할 수 있겠다. 한국의 원조 커피 마스터 중 한 명이 하는 원두 로스팅의 긴 역사와 함께 부드럽고 섬세한 커피를 보장한다. 커피 명가의 핸드 드립 '더치' 커피는 그야말로 강추이다. 하지만 이 카페를 방문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그 분위기이다. 나무로 된 야외 테라스는 앞산의 숲을 돋보이게 해 주고 대구에서 휴식을 취하며 라떼를 훌쩍거리기에 가장 평화로운 곳이다.

주소 : 남구 앞산 순환로 454

Best for a Strong Cup - Omnipotent

최고의 진한 커피가 있는 옴니포텐트

New on the Daegu coffee shop scene is Omnipotent near KNU Campus's North Gate. If you are tired of the Korean's preference for single shot espresso lattes that taste more of warm frothy milk than coffee, then this place is worth the venture. The coffee here lives up to it's name, serving smaller 8oz lattes with double shots. They also offer some unusual coffee options including a macadamia latte. The ambience here is laid back with cozy nooks at the back which are great for rainy days and for sunny days with a sofa looking towards picture windows onto the bustling college student-filled street ahead. Perfect for people watching.

Address: Buk-gu Daehak-ro 23-gil 6

대구 카페 씬에 새 얼굴은 옴니포텐트이며 경북북문 근처에 있다. 만약 커피보다는 거품이 떠 있는 따뜻한 우유맛이 나는 싱글 샷의 라떼에 싫증이 났다면 이 곳은 모험을 해 볼만한 곳이다. 이 곳의 커피는 가게의 이름에 맞아 떨어지는데 8 온스의 작은 사이즈로 더블샷라떼를 내놓는다. 또한 마카다미아 라떼를 포함하여 몇몇 흔치않은 커피 메뉴도 있다. 이 곳의 분위기는 뒤쪽에 안락한 구석자리가 있어 한가로운 느낌인데 대학생들로 가득한 바쁜 거리를 앞에 둔 전망창으로 놓여있는 소파가 있어 비오는 날과 해가 좋은 날에 딱이다. 사람들을 구경하기에 완벽한 곳이다.

주소 : 북구 대학로23길 6

Best for Nature - Coffee Myungga at Apsan Cable Car

자연을 즐기기에 최고인 앞산 케이블 카 근처 커피명가

This is a destination cafe worthy of the trek. Nestled at the base of the Apsan Mountain cable car entrance is a charming cafe serving Myungga coffee. Although this is now a major chain, it opened near Ky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1990 and was one of the first in Korea to invent the roasting machine, arguably making it the originator of coffee fever in Daegu and perhaps South Korea. With a long history of bean roasting by one of Korea's original coffee masters, you are guaranteed a smooth, delectable coffee. Their hand-drip 'Dutch' coffee is highly recommended. But the real reason to visit this cafe is for the ambience. Their wooden outdoor terrace backs up onto Apsan forest and is one of the most peaceful places in Daegu to relax and sip a latte.

Address: Nam-gu Apsansunhwan-ro 454

이 곳은 등산을 해서라도 가 볼만한 목적지이다. 앞산 케이블 카 입구의 아래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이 곳은 명가 커피가 있는 매력





Best for Freshness - Carthusia

신선함이 최고인 카르투스시아

With a two-story roasting house on the opposite corner, this is about the freshest bean to cup you will get in town. This spacious café near KNU Hospital Station on the Green Line is also a perfect place to relax for several hours either working on your first novel or catching up with a group of friends. It has the added benefit of also serving cocktails, so if your afternoon cuppa rolls into evening, you don't even have to move to continue your socialising.

Address: Jung-gu Dalgubeol-daero 2197-16

이층으로 된 로스팅 하우스가 반대편 코너에 있고 이 곳은 대구에서 가장 신선한 원두를 담은 커피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 지하철 2호선 경대병원역 근처에 있는 넓은 공간의 카페는 몇 시간 동안이나 처음으로 보는 소설을 읽거나 여러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또한 메뉴에 각테일도 추가되어서 만약 오후의 커피 한잔이 저녁으로 접어든다면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아도 된다.

주소 : 중구 달구벌대로 2197-16

With Daegu's plethora of coffee shops, I'm sure I've missed some other great independent places to have cup of Joe. Where is your favourite? Let me know on my Facebook page: <https://www.facebook.com/memoriesnotmaterialthings/>

대구에 과다하게 많은 카페들 때문에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멋지고 독립적인 장소들을 몇몇 놓쳤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어디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카페인가? 페이스북에서 알려 주시길 바란다. <https://www.facebook.com/memoriesnotmaterialthings/>

